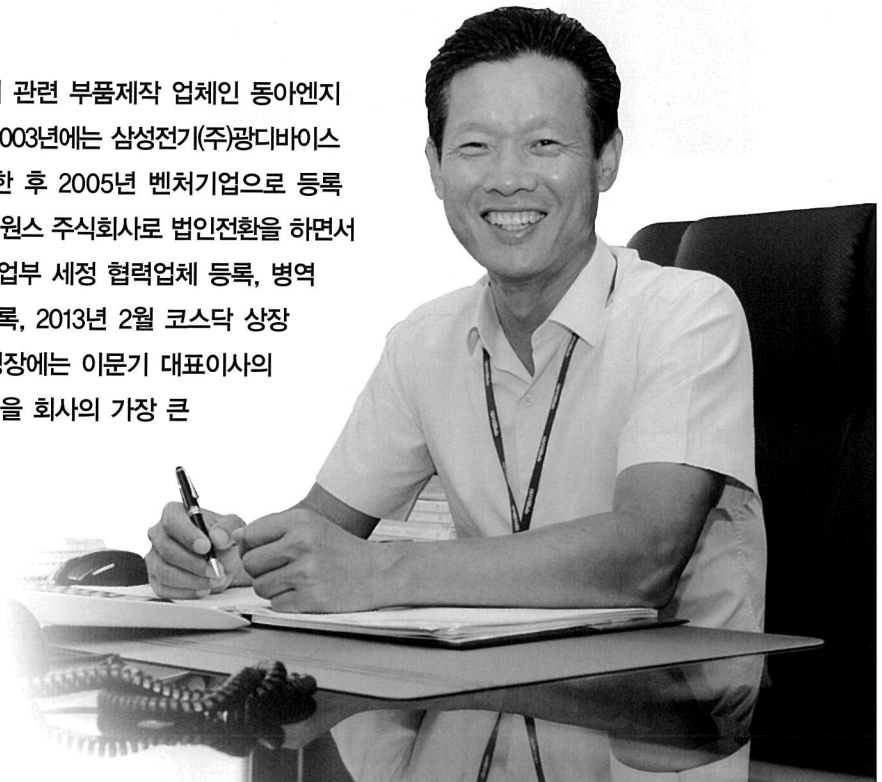


안전은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

종합부품기업 아이원스(주)는 1993년 3월 자동차·미디어 관련 부품제작 업체인 동아엔지니어링으로 출발했다. 1994년에는 반도체 LCD부분 그리고 2003년에는 삼성전기(주)광디바이스 사업으로 진출했으며, ISO9001·ISO14001 인증을 획득한 후 2005년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면서 전도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이후 2005년 아이원스 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2006년 기흥 세정공장 준공, 2007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세정 협력업체 등록, 병역 특례업체 선정, 2011년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원 업체 등록, 2013년 2월 코스닥 상장 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오게 된다. 이곳의 이러한 성장에는 이문기 대표이사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신념이 밑거름이 됐다. 직원들의 안전을 회사의 가장 큰 가치로, 그리고 직원들을 회사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고 안전에 집중 투자하면서 무재해를 이어온 것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안전경영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이문기 대표이사를 찾아가 그만의 안전철학을 들어봤다.

취재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



젊고 패기있는 기업 아이원스(주) 이문기 대표이사

현장 선배로서의 조언이 안전에 큰 힘

이곳의 모토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방심을 허락지 않는 회사의 신념을 잘 느낄 수 있다. 이 대표이사는 이 같은 신념이 현장 곳곳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친다.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틈틈이 현장을 찾아 작업상황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예전 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여러 조언도 서슴지 않는다. 대표이사로서의 말이나 근로자들에게 그보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단, 그의 조언은 단순히 대표이사로서의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보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처럼 현장 선배로서 나오는 진심어린 조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작업환경

이 대표이사가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작업환경이다. 근로자들이 안전에서 탈피하지 않으려면, 근로자가 안전한 생각을 갖고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작업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3정 5S’를 바탕으로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노력한다. 실제로 이곳은 작업 전후로 10분간씩 주위 환경 청소시간을 별도로

갖고 있으며,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안전시설 및 장치, 환경시설 등을 철저히 갖춰놓은 것은 물론, 사고 및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동선과 기계배치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안전이 진정한 안전

이 대표이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다. 안전의식이 배어 있다면 작업 중 방심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다. 그가 말하는 안전은 단순히 안전수칙을 지키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높은 곳에 올라 가면 자신도 모르게 옆의 난간을 잡듯이, 몸으로 기억하고 무의식중에 행하는 안전이 진정한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직원들에게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전을 생활화할 것을 항상 주문한다. 안전교육도 교육내용이 근로자들의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주지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현장을 찾을 때에도 항상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안전의 생활화다.

안전은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

보통 사업주는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만 직접 투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성만이 강조되는 현장문화의 단적인 폐해다. 하지만 이 대표이사는 안전이나 환경, 건강을 위한 투자도 직접 투자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집중력이 높아지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 생산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회사의 재산이고 생산성이라고 보는 그의 신념이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안전에는 쓸데 없는 비용이 든다', '다른 기업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만 꼭 안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등의 생각들이 없어져야 재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이 대표이사의 목표는 아이원스(株)를 100년 이상 지속하는 장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회사, 살아있는 역동적인 회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이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안전에 바탕을 둔 즐겁고 웃을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된다. ☺

